

비판적 사고와 구성주의

박만엽 (고려대 철학연구소)

주제분류

논리학, 논리철학

주요어

비판적 사고, 구성주의, 생활세계, 논증행위, 언어게임, 문제해결능력, 수사학

요약문

생활세계에 근거를 둔 비판적 사고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산적이며 긍정적인 활동이다. 비판적 사고는 창조성과 사고방식의 혁신을 요구한다. 비판적 사고는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갈등적 요인들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고, 건강한 비평의 가능성을 옹호함으로써 생활세계에서 의사소통의 장을 여는 데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 비판적 사고는 생활세계에서 우리가 언어를 통해 행할 수 있는 실천적 활동이라는 틀 안에서 성립하는 언어게임의 한 부분이다. 여기서 필자는 비판적 사고를 구성주의와 연관시키고자 한다. 그 이유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구현시키고자 하는 학습이론으로서, 구성주의는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환경, 즉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동시에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 이론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지 스스로 진단하여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선택하고 가공하며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즉 문제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의 효율적 학습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것 역시 구성주의의 학습원칙을 통해 그 실천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의 흐름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메타적 차원이 아닌 생활세계의 다양한 담론을 직접 아우를 수 있는 실천적 방안과 그에 부합하는 기술과 방법론이 요구된다. 아울러 비판적 사고가 그 대상이 되는 다양한 논증들에 대해 나와 타자의 열린 자세를 견지하며 지속적인 물음의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수사학에 토대를 둔 논증 행위의 실천도 비판적 사고의 범주에 포섭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비판적 사고와 수사학의 새로운 만남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는 글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과학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에 힘입어 인간이 접하는 생활세계 역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 소수의 독점적 권력이었던 문자 매체로서의 지식은 컴퓨터와 인터넷, 멀티미디어를 통해 개방된 지식과 정보의 시대로 새로운 탈바꿈을 하고 있다.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 역시 중요한 위치에 있다. 특히 인간의 성공적인 삶에서 ‘훌륭한 사고’(good thinking)는 중요한 요인이다. 생활세계의 급속한 변화는 비단 교육의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서 ‘비판적 사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비판적 사고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요구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대성으로부터 탈근대성으로 이행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변화’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두지를 않는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맞물려 사람들의 생각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차이와 다양성이 공유되는 문화적 상대주의, 혹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사람들의 삶의 양식에 중요한 기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변화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변화는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를 남긴다. 생활세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은 양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클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는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띤다. 때문에 사회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올바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적 요인들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 비평의 가능성을 옹호하고, 교육의 목적에 대해 신뢰할 만한 설명을 하는 것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첫째, 올바른 비판적 사고의 정립을 위해 왜 구성주의가 논의되어야만 하는지를 규명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성주의는 이제 학문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세계의 다양한 담론들을 분석, 비판, 평가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둘째, 비판적 사고의 실질적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이하 KICE로 약함)이 2001년 6월에 펴낸 “비판적 사고력 검사 예비 문항 개발편”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다룰 것이다. 여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 이유는 다음과 같다. KICE 연구보고서는 비판적 사고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개념 분석으로부터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비판적 사고의 자리매김을 위해 각계각층의 연구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사고력 검사 예비 문항 개발편”에 있는 주된 문항의 내용과 형식은 형식논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단순히 비형식 논리학에 있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문항들의 형식과 내용이 평면적이라는 느낌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필자는 비판적 사고의 외연을 확장시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와 논리 외적인 고려를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판적 사고가 제대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인지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의적 요인에 대한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비판적 사고와 수사학의 융합이 어째서 요구되는지를 보일 것이다.

2. 비판적 사고와 생활세계¹⁾

1) 여기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생활세계’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생활세계 개념은 ‘삶을 헤쳐 나가는 실천’(Praxen der Lebensbewältigung)과 연계되어 사용되는 개념으로, 이는 다시 기준하는 인간의 실천 영역들은 삶에서 일반적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다.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문명과 문화의 세계로 접어들 수 있었던 것 역시 생각하는 능력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못했다. 자연과 세계의 다양함으로부터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인간은 합리적 판단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고 현재의 행동을 조절하며 주어진 목표에 합당한 선택을 한다. 한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와 문명의 성패는 인간의 사고 능력 그 중에서도 합리적 판단 능력에 달려 있다(석봉래, 2002, 14쪽).

비판적 사고는 합리적 판단 능력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만 두 개념의 의미가 완전히 같지는 않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10)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비판적 사고의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McPeck, 1981, pp.12-4).²⁾

1) 특정한 분야 혹은 실질적인 문제들과 별개로 추상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가르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떤 종류의 사고는 항상 'X에 관한 사고'이다. 반면에 비판적 사고의 주제는 언제나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다. [비판적 사고의 주제는 그 시대의 상황과 맥락에 의존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동성애나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 페미니즘과 성 정치학 등의 문제는 전혀 비판적 사고의 대상이 될 수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2) 비판적 사고는 검증 가능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지만 비판적 사고의 올바른 적용에 대한 기준은 그것이 적용되는 분야에 따라 다르다. [비판적 사고가 검증 가능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비판적 사고가 생활세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며, 과거의 전통적 형이상학에 의거한 진리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과도 통한다. 이를테면 가상의 세계, 놀이의 세계와 일의 세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뮬라크르'(simulacre)의 개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오타쿠³⁾들에게 기존의 문자세대에서 통용된 기준을 갖고서 그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오히려 이들의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상공간의 놀이적 속성을 현실적 생활공간에 적용하려는 이들의 문화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들에 대한 올바른 비판적 사고를 전개할 수가 있을 것이다.]

3) 비판적 사고는 받아들인 기준들로부터 반드시 불일치, 거부 혹은 일탈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비판적 사고는 반성적이지 못한 신념, 고려되지 못한 행동, 해결할 수 없는 불일치에 대해 학습과 논의로 대처하는 가능성을 열어 둔다." (McKay, 2000, p.2)

으로 제기되는 인간의 욕구들을 해결해주고 있음을 말한다, 다른 말로 표현해, 생활세계적 실천이란 우연히 출현하는 인간의 사치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삶의 조건과 삶의 요구조건 하에서 ... 인간의 여러 욕구 조건들 하에 나타나 실천되는 그러한 인간 행위 영역을 말한다." 페터 아니히(2004), 38쪽.

2) 꺾쇠 안에 있는 내용은 주로 필자의 주장이나 생각임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했다.

3) 여기서 말하는 오타쿠들은 일정한 직장도 없고 가정생활, 재테크 등에 관심이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성향이 강한 신세대 젊은이들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한 부분, 예를 들면, 자신들이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가수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박학다식하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이 많을수록 그 세계에서는 존경을 받는다. 그런데 이들은 단지 가상 세계로 들어가 그 세계의 주인공이 될 뿐 아니라 가상세계에서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현실로 적용시키려는 의지도 보인다. 이를테면 오타쿠들은 펜진 박람회를 열어 자신들이 만든 잡지를 전시하기도 하고 스타들, 혹은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들의 옷차림을 본뜬 코스프레 행사도 한다. 즉 가상세계에서의 몰입을 통해서 이들은 변해버린 자신의 논리를 현실세계에 과감하게 적용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성향을 띤다.

4) 비판적 사고 개념의 본질을 드러내는 말로는 ‘반성적 사유에 기반을 둔 회의주의’(reflective scepticism)를 들 수 있다. 그렇지만 보다 완전하게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유용 가능한 증거) E가 (X안에 있는 어떤 명제 혹은 행위) P의 참 혹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립하는 데 충분하게 지지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거부되는) 방식에서 X를 행하고자 하는 성향 혹은 기술(技術)과 같은 것이다. [이를테면 최근 보건복지부의 폐암 연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고집하는 사람의 성향에는 흡연이 폐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연구결과(E)에 대한 믿음이 참이 아닐뿐 더러귀납적으로도 충분한 연구 결과가 아니라는 믿음(흡연을 하고도 장수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믿음)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5) 비판적 사고는 단순히 진술들의 평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포함된 사고 과정과 일정한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좁은 의미의 논리적 분석이 논증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한다면, 비판적 사고는 논증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행동과 달리 행위가 성공, 혹은 실패할 수 있는 것처럼, 비판적 사고 역시 문제 해결에 대한 상황에 따라 성공, 혹은 실패할 수 있다. 필자는 앞으로 행위⁴⁾의 실천 개념이 구성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일 것이다.]

6) (형식 논리와 비형식 논리 양자를 포함한) 논리의 연구만으로는 비판적 사고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⁵⁾ [논리학은 올바른 사고의 규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논리학은 사실의 학문이 아니라, 규범의 학문이다. 논리학을 통한 규범적 접근이 합리적 판단의 기준의 필요 불가결한 조건을 제공할 수는 있다. 이 점에 대한 논의는 10)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7) 비판적 사고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는 한, X 분야의 비판적 사고자는 Y 분야의 비판적 사고자가 될 수는 없다. [이를테면 임신중절 혹은 생명 복제와 같은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종교가와 과학자의 신념은 충돌할 수 있다.]

8) (가르침, 교육과 같이) ‘비판적 사고’는 하나의 과제이며 성취이며, 반드시 성공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생활세계에서 생산되고 구성되는 다양한 담론들에 대해 변화의 흐름이라는 맥락을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비판적 사고는 하나의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이는 비판적 사고의 대상이 되는 가정들과 결론에 대한 지속적인 물음의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이루고 있는 맥락과 사회적 가치 체계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가정들을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판적 사고는

4) 피터 아니히(2004)가 구분한 행위와 행동의 특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행위는 유의미한 방식으로 권유 내지 권장될 수 있는 반면,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행위는 거부될 수 있는 특징이 있지만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행위는 그것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 가능하지만 행동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행위가 성공할 수 있거나 실패할 수 있는 반면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47-8쪽). 이러한 행위 개념을 수사학과 연관시키면 ‘구성적 수사학’(constructive rhetoric)의 개념과 통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4.3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5) McPeck(1981, 106쪽)에 의하면, 논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i) 논리는 종종 효과적인 생각과 동의어인 것처럼 잘못 생각되고 있다. ii) 형식 논리는 모든 관련된 정보가 처음부터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실제적 문제들은 그렇지가 못하다. iii) 논리는 새로운 생각들을 도입할 수도 없으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도 없다.

실천의 측면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⁶⁾

9) 진술들의 평가에 덧붙여, 비판적 사고는 방법, 전략 그리고 표본적 사례로서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거나 거부할 수 있다.

10) 비판적 사고는 ‘합리성’과 외연이 같지는 않지만 합리성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는 있다. [즉 비판적 사고는 합리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의적인 측면도 작용한다. 비판적 사고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라는 문맥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신념들과 그것을 실행하는 구조적 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가정들을 인식하는 종합적 사고활동이다. 이런 점에서 비판적 사고는 학제간 연계의 구조 속에서 통합적 사고를 지향해야 한다.⁷⁾ 비판적 사고와 수사학의 만남도 이런 맥락에서 요청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그간의 비판적 사고에 대한 다양한 특징과 정의를 토대로 미국철학회가 1989년에 내놓은 “비판적 사고 및 이상적인 비판적 사고자에 관한 동의서” (Consensus Statement Regarding Critical Thinking and Ideal Critical Thinker: 이하 텔피 보고서로 약함)에서 비판적 사고 및 이상적인 비판적 사고자에 대해 통합 규정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비판적 사고가 해석, 분석, 평가 및 추론을 산출하는 의도적이고 자기 규제적인 판단이며, 동시에 그 판단에 대한 근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증거적, 개념적, 방법론적, 준거적, 또는 맥락적 측면들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산출하는 의도적이고, 자기 규제적인 판단이라고 이해한다. 비판적 사고는 필요불가결한 탐구의 도구이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교육에서는 해방적 힘이며 개인적, 시민적 삶에서는 위력 있는 자산이다. 비판적 사고는 ‘훌륭한 생각’과는 동의어가 아닌, 널리 퍼져 있으며 자기 교정적인 인간 현상이다. 이상적인 비판적 사고자는 습관적으로 이유를 꼬치꼬치 묻고, 잘 알고자 하는 근거를 중요시하며, 평가에 있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유연성이 있으며, 공정하고, 개인적 편견을 다룸에 있어서 성실하고,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기꺼이 재고하고, 현안 문제들에 대하여 명료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집중하여 탐구하고, 주제와 탐구의 상황이 허락하는 한 되도록 정확한 결과를 끈기 있게 추구한다. 그래서 훌륭한 비판적 사고자를 교육시킨다는 것은 이 이상을 향해 노력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훌륭한 비판적 사고자 교육은 비판적 사고 기법을 터득하게 함과 동시에, 꾸준히 유용한 통찰을 산출하는, 그리고 이성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의 초석을 이루는 성향을 육성하는 것이다. (텔피 보고서 3쪽, KICE 19쪽, 재인용)

필자는 비판적 사고를 우리들의 삶, 그리고 생활세계에서 우리가 언어를 통해 행할 수 있는 실천적 활동의 영역의 틀 안에서 성립하는 언어게임의 한 부분으로 보고자 한다. 여기서 ‘언어게임’이란 용어는 “언어를 말하는 것이 활동, 혹은 삶의 형식의 일부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 (Wittgenstein, 1953, §23)이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관련된 절에서 상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이제 문제를 접하는 기본 기술들의 평준화된 테스트에 입각해 점수화하는 단순한 과거의 기준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적절한 평가로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의

6) 필자의 이러한 주장은 김광수(2001), 교육인적 자원부,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 육성을 위한 ‘생각하는 교육’의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 35쪽에서 강조하는 ‘실천’의 측면과 부합한다.

7) 개별적 사고에서 다학제적 연계사고를 거쳐 통합적 사고에 이르면 모든 학문 분야와 관련된 인간의 노력이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게 되며 하나로 통합된다. 각 학문 간에 깊은 협조 관계가 형성되어서 새로운 형태의 학문, 또는 정보로 변형된다. Siler(2002), 298-9쪽, 참고.

양과 질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필자가 비판적 사고를 구성주의에 입각한 교육방법론과 연관시키고자 하는 주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생각은 궁극적으로 “비판적 사고가 교육을 개선할 수 있으며” (McPeck, 1981, p.37) 더 나아가 올바른 비판적 사고의 정립이 생활세계의 다양성과 나와 타자와의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 체계의 굳건한 기반이 되리라는 필자의 믿음과 통한다.

비판적 사고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산적이며 긍정적인 활동이다. 비판적 사고는 창조성과 사고방식의 혁신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상상력에 근거를 둔 사고실험의 가능성과 대안들이 다각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비판적 사고가 전적으로 사고의 부정적인 과정이라든지, 과거의 낡은 가정들은 지속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식의 병적인 집착의 소산으로 취급한 나머지 차갑고, 냉정한 이성의 산물이라는 선입견은 버려야 할 것이다. 오히려 비판적 사고는 과거의 가정들과 자신의 불안정한 탐구에서 비롯되는 근심들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킬 수 있는 올바른 사고의 전형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KICE 비판적 사고력 검사”에 대한 비판적 논의

한국교육과정연구원(KICE)에서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개발한 “비판적 사고력 검사”는 보다 성숙해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고차적 사고력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민주주의 열린사회에서 비판적 사고는 또한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도덕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진실과 허위,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 보편적 가치와 특수한 가치 등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가 필수적이다. 살아가면서 매순간 부딪치는 문제 상황에서 비판적 사고를 통해 획득한 공동체적 삶을 위한 세계관과 가치관으로부터 최선의 결단을 도출해 낼 수 있어야 도덕적 인격체도 될 수 있고 성숙한 민주 시민도 될 수 있는 것이다.”(KICE, 3쪽)

이러한 취지 아래 “비판적 사고력 검사”를 통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KICE, 14쪽).

- 첫째, 단순한 지능 수준을 넘어서 보다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고차적 사고력의 수준을 기른다.
- 둘째,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비판적 사고력 검사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게 하여 일선 학교의 고차적 사고력 학습 지도의 기능을 지원 및 선도한다.
- 셋째, 일선 학교 및 교육 연구자에게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고차적 사고력 측면에서 교수-학습 효과 및 학교 교육의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제공한다.

필자는 우선 KICE의 이러한 원론적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비판적 사고력 검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주제로 한 KICE 연구보고서의 II장 (15쪽-79쪽)은 비판적 사고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전무했던 우리의 교육 환경에서 앞으로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보다 나은 연구 성과물들이 나올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앞으로의 현대사회에서 비판적 사고가 갖는 의의 및 목적은 물론 구체적 방법론을 폭넓게 제시한 점은 KICE가 주도한 비판적 사고력 개발 연구에 대한 정당성은 물론 설득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본다. 또한 델피 보고서에 제시된 비판적 사고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재구성한 점은 참신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의 개념: 어떤 견해를 받아들일지 또는 어떤 행위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텍스트(진술 등 언어적 표현과 행위)에 대하여 그 논리적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고 개념, 증거, 준거, 방법, 맥락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사고 (KICE, 29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다음에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물론 필자의 이러한 비판적 문제 제기는 “KICE 비판적 사고력 검사 개발”을 위한 연구보고서가 보다 내실 있는 콘텐츠를 갖도록 하는 보완적인 취지에서 논하는 것임을 밝힌다.

1) KICE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비판적 사고는 인지적 요소인 비판적 사고능력과 정의적 요소인 비판적 사고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5쪽), KICE 비판적 사고력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비판적 사고력’은 바로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인지적인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1쪽) 우선적으로 필자는 KICE 연구보고서가 규정한 인지적 능력이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며 인간의 인지 능력에 대한 선제성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은지를 묻고 싶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지적인 능력은 비판적 사고력의 필요조건이 된다. 그렇다면 어째서 인지적인 능력이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요인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합리적(비판적) 사고의 문제를 다룰 때 인간의 실질적인 인지 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런 의미에서 인지에 대한 경험 과학 특히 심리학의 연구 성과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석봉래, 2002, 25쪽)⁸⁾

인지 능력은 사고 과정(thinking process)에서 시작된다. 먼저 사고 과정으로부터 인지에 도달해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오감으로 이루어진 감각은 외부 세계로부터 포착한 감각들을 우리의 신체에 제공하며, 이러한 감각들은 신경에 의해 그것들을 전달해주는 생물학적 구조에 전달된다. 오감에 의해 제시된 생물학적-감각들은 신경에 의해 두뇌에 투입되며 두뇌는 투입된 메시지(정보)들을 해독하고 암호화해서 그것들을 신경 체계를 통해 내보낸다. 심리적 단계에서는 두뇌로부터의 메시지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지각과 반응으로 바꾼다. 인지적 전환(cognitive translations)은 바로 여기서 일어난다. 즉 인지적 전환은 지각과 반응의 사고 과정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차원을 통해 개념, 관념, 가정, 추측, 추론, 가설, 물음, 신념, 전제, 논리적 논증 등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의 단계는 두뇌로부터 받은 메시지들을 인지 전환 과정에서 생성된 사고와 관념 등을 전달하기 위해 언어적, 비언어적 그리고 글자로 된 언어 등으로 바뀌는 과정을 말한다.

인지 능력에 대한 경험 과학적 연구, 즉 심리학의 연구 성과를 주목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고려할 때, 합리적(비판적) 사고의 기준은 인간 사고의

8) 이 글의 2절 10)에서 합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의 외연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석봉래(2002)에 의하면, 많은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를 인간의 합리적 사고 능력에 대한 회의(인지 비판론, 인지 성악설)를 보여준다. 이를테면 트버스키와 카너만(Tversky and Kahneman, 1983)이 제시한 린다문제(Linda Problem)를 통해 (확률의 전문가 계급에 속하는) 피험자들 대부분이 확률 계산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연언 오류(conjunction fallacy)를 범하고 있음을 보인다. 또한 인간의 인지적 특이성과 연관해 뮐러-라이어 착시(Muller-Lyer Illusion) 현상을 들면서 나름대로 인간의 추리와 판단의 합리적 기준을 구성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석봉래 주장의 핵심적 귀결은 추리와 판단에 대한 합리적 기준에 대한 재구성에 있기는 하지만, 그가 제시한 ‘불완전성’(인간의 사고 능력은 완벽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사실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는 문제 해결을 고집하는 경우도 있다)과 ‘미완결성’(인간의 합리적 판단 능력은 그 자체로 완결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적 문화적 도구를 통해 계속적인 발전을 거듭한다) 개념은 (석봉래, 2002, 247쪽) 비판적 사고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된다. 확률적 사고와 선택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성향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는 McKay(2000, pp. 228-9)를 참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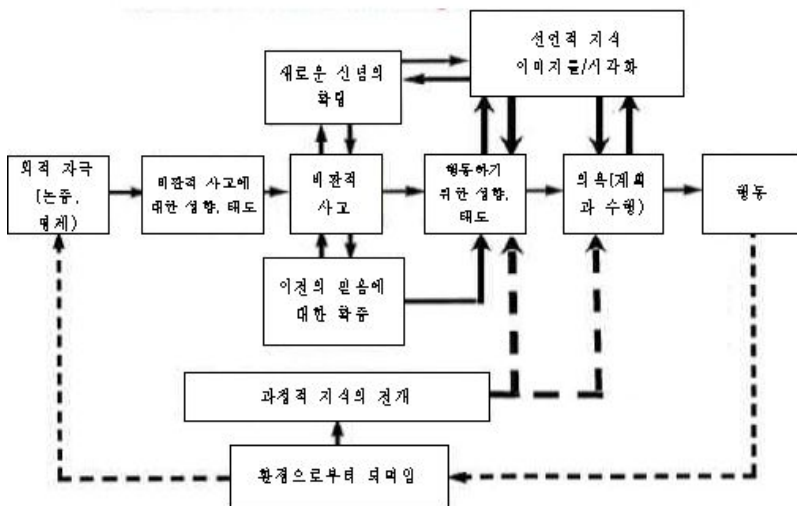
한계성 내에서 구성가능하거나 설명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인간의 유한한 인지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기준은 비판적 사고의 적합한(relevant)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석봉래, 2002, 24쪽) 사고 과정에서 인지 능력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내적인 지식의 존재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인지 능력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충분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 내재적인 인지 능력은 외적인 조건, 즉 사회적 조건이나 환경과 같은 후천적 요인, 이를테면 교육과 계몽에 의해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인지 과정은 암묵적으로 전제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며 여러 가지 외적 상황에 따라 특이성을 발현할 수 있는 요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비판적 사고가 인지적 요소인 비판적 사고능력과 정의적 요소인 비판적 사고성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KICE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적 사고의 모델”을 제시한다(Huitt, 1998).

이러한 “비판적 사고의 모델”을 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인지 과정에 부수적으로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비판적 사고의 정서적(affective), (욕구, 의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의욕적(conative), 그리고 행동적(behavioral) 특징들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비판적 사고를 구성하는 주된 요인인 믿음과 행동에 대한 그간의 다양한 정의들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시한 “비판적 사고의 모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외적인 자극이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논증이나 명제에 제시된다. 그러한 자극이 일어나면 여기에는 비판적 사고 과정을 활동하게끔 해야만 하는 비판적 사고를 사용하려는 정서적인 성향이 있다. 비판적 사고의 결과로 이전에 주장된 믿음은 확증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믿음이 수립된다. 이러한 과정은 믿음과 관련된 우연적인 정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믿음의 의미론적 형식에서 선언(宣言)적인 기억의 구성요인으로 확립될 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비판적 사고 과정의 부분으로 형성되거나 기억된 심상들 혹은 구상화의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

《비판적 사고의 모델》



그 다음에는 비판적 사고가 행동의 지침으로 행하기 위해 계획하거나 행동을 취하는 정서적인 성향이 있다. 목표 설정과 자기-규제의 정서적 구성요인들은 행동 계획을 발전시키고 보

완하기 위해 반드시 활동적이어야만 한다. 행동이 취해지면 환경으로부터 되먹임 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곧 과정적 지식이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새로운 학습은 반드시 수정적인 행동이 믿음에 기초한 욕구된 목표를 향해 행동을 지도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상황 자체가 부수적인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게끔 제시하는 것처럼 유용하다.

완전한 비판적 사고 프로그램은 위에서 제시한 모델의 구성요인들 각각을 성공적으로 다룰 경우에 성립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적절한 교수 방법은 각각의 구성요인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영향력 있는 선언적 지식(의미론과 우연적인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사실들, 개념들, 원리들, 등등)에 최대의 관심을 가진다면, 가장 적절한 교수 방법은 아마도 교훈적, 명시적, 혹은 직접적 교수의 형식이 될 것이다. 반면에, 초점이 과정적 지식에 있다면, 적절한 교수 방법은 모델화 혹은 개인적 경험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미지 혹은 구상화와 같은 기억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면, 모델화, 활동적인 구상화 혹은 그림들을 가지고 작업한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사람들의 태도는 아마도 사회화와 협력적 학습(cooperative learning)이라는 교수 방식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비판적 사고의 과정을 학습하는 것은 교훈적 가르침과 특정한 분야들의 내용에 대한 경험들의 결합에 의해 촉진될 것이다. 의지의 발동에 대한 영향력은 목표 설정에 대한 연습과 행동 학습을 통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명백한 행동과 되먹임을 사용하는 학습은 긍정적(혹은 부정적) 강화를 사용함으로써 가장 잘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2) 필자의 이러한 주장은 KICE 비판적 사고력 검사의 하위요인 및 세부 하위요인을 도식화한 <표 III-3>(KICE, 101쪽) 항목들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연결된다.⁹⁾ 단적으로 말해서, 비판적 사고력 검사 세부 하위 요인들의 항목들은 기존의 논리학에서 다룬 내용에 최근에 다루어지고 있는 비형식논리학의 내용들을 적절하게 배합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세부 하위 요인들에 대한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이 올바른 최선의 방식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KICE 비판적 사고력 검사가 말 그대로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의 차원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필자 역시 충분히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눈에는 여전히 그와 같은 비판적 사고력 측정을 위한 항목들이 여전히 평가를 위한 평가의 차원에서 고안된 평면적인 한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규격화된 제도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의 실질적 대안으로 나온 비판적 사고가 다시금 규격화되는 순환적 오류에 함몰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필자가 보건대, 비판적 사고력 검사 항목에 대한 이러한 의문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논리적 사고에 우선성을 부여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비판적 사고의 학습에 있어서 논리적 사고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새로운 교육환경에 부합하는 올바른 비판적 사고의 정립이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논리적 사고가 곧 비판적 사고라는 인식은 과거의 규범적 틀에 회귀하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비판적 사고는 “논리(logic)와 형식(form)을 중시했던 하드웨어 형태에서 감성(sense)과 콘텐츠(contents)를 중시하는 소프트웨어 형태로 변하는 지식의 변화”(정진홍, 2000, 199쪽)라는 시대적 흐름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9) 김광수(2001),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 육성을 위한 ‘생각하는 교육’의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53 쪽. 필자의 이러한 비판은 이재분(1996), “아동의 추리 과제 해결 능력에 대한 발달 수준 분석”에서 6개 하위 추리 과제(연역 추리: 서열화, 삼단 논법, 명제 추리/귀납 추리, 언어 유추, 수열, 조합 추리)를 선정한 것, 역시 아동의 추리 능력을 논리적인 문제에만 국한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그렇다면 비판적 사고가 새로운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는 논리에 토대를 둔 합리적 분석이외에 플러스알파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올바른 비판적 사고의 정립에는 기존의 합리적 분석을 토대로 감성의 논리를 계발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와 토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설득을 지향하는 말의 과학으로서의 수사학”(하병학, 2000, 23쪽)의 문제가 실질적인 생활세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유한한 인간의 인지적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학제적 연구의 통합적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에 대한 통찰이 요구된다. 필자가 비판적 사고를 구성주의 교육 방법론과 연계시키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4절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3) KICE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진술과 기타 표현으로 칭하는 언어적 표현과 행위를 한마디로 ‘텍스트’라 칭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의 대상을 ‘텍스트’로 칭하게 되면 그 대상의 폭을 언어적 표현보다 넓게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즉 비판적 사고의 대상은 주장, 진술, 기술, 신념, 논증, 논변, 논의, 생각, 의견, 견해, 제안, 해석, 판단, 이론, 원칙, 덕목, 관행, 통념, 도표, 자료, 통계, 경험, 사건, 상황, 현상, 문제, 물음, 답변, 규약, 규칙, 정책, 제도, 절차, 기준, 행위 등 (이하 ‘텍스트’)이라고 규정한다.”(KICE, 23-4쪽) 물론 텍스트에 대한 이러한 규정에 대한 근거로 각주 15)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텍스트’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정착된 외래어이며, 철학계에서도 그 의미가 분명하게 잘 사용되는 용어이어서 이 표현을 사용하여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우선 비판적 사고의 대상이 언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인간의 생활세계에서 나타나는 갖가지 담론들을 포괄적으로 텍스트로 규정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왜냐하면 비판적 사고의 대상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비판적 사고에 대한 연구에 대한 연구가 단순히 어떤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문제와 관련된 인접 학문들의 학제간 통합이 요청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KICE 연구보고서 각주 15)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텍스트’라는 용어를 선별하게 된 이유가 이론적으로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과정 평가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이런 식의 주를 단다는 것은 공신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적어도 이런 식의 태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텍스트’라는 용어에 대한 이론적 검증의 과정을 거친 연후에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텍스트 개념의 비판적 논의에 필자가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후기 구조주의자 데리다(J. Derrida)의 텍스트 개념이 우리가 다루고자 비판적 사고의 올바른 방향성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연유한다. 그 이유는 텍스트를 통해 해체적 독해와 지배 담론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것을 주장하는 데리다의 관점이 우리가 정립하고자 하는 비판적 사고의 방향성과 그것의 올바른 자리매김에 적절한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이성중심주의의 철학을 현존의 형이상학, 음성 중심주의, 남근 중심주의로

10) 필자의 이러한 비판은 김광수(1995) 183쪽에 나오는 ‘자비의 원리’(principle of charity)에 대한 설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데이빗슨(Davidson)의 ‘자비의 원리’를 재구성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적합한 설명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필자는 사실 이전에 김광수 선생의 『논리와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논리학 강의를 한 적이 있으며, 그때 한 학생이 ‘자비의 원리’에 대한 출처를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원리’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파악하는 데리다는『문자학』에서 “텍스트 밖에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텍스트주의를 주장한다.¹¹⁾ 이는 어느 누구도 담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뜻한다. 텍스트가 맥락이나 저자의 의도와는 독립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산출하는 유동적 실체라는 것, 따라서 다양하고 대립적인 독해가 항상 존재하는 가능성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텍스트는 이제 일관된 의미 또는 단일한 진리를 담고 있는 엄숙한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모순과 공백의 집합체로 이해된다. 때문에 시공의 복합체에서 존재하는 모든 텍스트는 텍스트의 저자와 독자의 상호관계에서 다양한 독해가 존재하는 것처럼, 의미와 무의미가 ‘흩어져 버리는’(산포, dissemination) 은유의 공간이 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텍스트는 우리에게 억압적으로 부과되는 신성한 의미를 수용해야만 하는 당위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사유의 공간이 된다(허재영, 1995). 우리의 기존 언어와 형이상학에 대한 인식론의 지배적 담론 체제를 해체시켰다는 점에서 데리다의 텍스트에 대한 관점은 나름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데리다의 텍스트에 대한 관점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자는 말은 아니다.

기존의 해석이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할 때 반드시 그러한 논변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있는 것이 상식적인 믿음이다. 그렇지만 데리다는 이러한 책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데리다가 해체에 대한 전략을 지나치게 은유와 역설의 문제에 의존한 나머지 논리학과 지식의 명백한 경시, 그리고 논증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우리가 데리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텍스트 해석에 있어서 문학적(표현적) 수사의 화려함을 추구한 만큼 표현 방식의 일관성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일 것이다(이승중, 1998, 135쪽).

비판적 사고의 대상이 텍스트라는 주장을 데리다의 관점에서 보자면, 서로 다른 생각에 맹목적으로 합의나 일치를 요구하는 제도의 억압적 특성을 비판한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판적 사고가 나와 타자의 차이, 다양성이 존중받는 상생의 논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텍스트의 의미가 끝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데리다의 차연(差延)의 논리는 우리를 다시금 회의주의에 함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데리다의 해석에 대한 평가적 문제와 귀결된다. 데리다의 해석에 대한 평가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임을 감안했을 때, 정말로 ‘텍스트’라는 용어가 우리의 학계에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다.

4. 비판적 사고와 구성주의

우리 시대의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는 비단 학문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세계를 가로지르는 여러 분야에서 비판적 사고와 구성주의를 인식하고 수용하려는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 여기서 필자는 구성주의에 입각한 비판적 사고의 올바른 정립이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나와 타자의 차이와 다양성을 통합할 수 있는 ‘상생과 융합’의 시대정신을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임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필자가 비판적 사고를 구성주의와 연관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학습자 중심

11) 데리다의 텍스트주의에 대한 비판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삶의 양식’이라는 실천의 맥락에서 논리학을 이해하는 것, 즉 의미 있는 텍스트 배후에 반드시 투명한 논리학이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미신에 불과하다는 생각과 통한다. 텍스트 배후에는 차이성과 그 체계라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텍스트 배후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것도 또 하나의 미신이다. 이승중(1998, 163쪽, 참고)

의 교육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는 학습이론으로서, 구성주의는 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환경, 즉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동시에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려는 학습이론으로 표현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변화해가는 상황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에 압도당하지 않으려면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지 스스로 진단하여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선택하고 가공하며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즉 문제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의 효율적 학습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것 역시 구성주의의 학습원칙을 통해 그 실천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강인애, 2003, 5-6쪽).

필자는 먼저 구성주의와 관련된 철학적 배경의 단서를 '메논의 역설'로 잘 알려진 플라톤의 대화편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1) '메논의 역설'에 대한 비판적 논의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에 있어서 '대화'(dialogue)의 기능적 역할을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믿음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 플라톤은 자신의 대화편 《메논》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지식의 획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역설을 제기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아는 것도 혹은 모르는 것에 대해 물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안다면, 그 사람은 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 사람이 모른다면, 그 사람 역시 물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묻고자 한 바로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Plato, Meno, 80E).

메논의 역설에서 제기된 쟁점에는 다음과 같은 교육적인 설명이 있다. 우리가 단순히 학생들의 머리 속에 지식을 주입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그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기억된 것으로서보다는 지식으로 받아들인 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배움은 항상 학생들이 현재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어떻게 알게 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른바 낡은 지식과 새로운 지식 간에는 인식론적 공백이 생긴다(H. Petrie & R. Oshlag, 1996, 582-3쪽).

필자가 보건대, 진리의 원천으로 이해된 서양의 대화에 대한 고전적 관점에는 철저하게 '타자'의 문제가 결여되어 있다. 대화의 전형으로 잘 알려진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저술한 플라톤의 대화편은 대화 그 자체의 본래의 목적, 즉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은 부수적이며 오직 이데아로서 진리에 대한 '상기'만이 강조될 뿐이다.

메논의 역설에서, 소크라테스와 피타고라스의 대화를 통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했던 그 소년은 이미 하나의 규칙을 배웠다. 그러나 플라톤이 주장한 것처럼,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분명히 드러나는 그 규칙을 보여 줄 수 없기 때문에 '가르침'과 같은 그런 것은 없다. 규칙의 가르침-배움의 과정 안에서는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어떤 도약이 일어난다. 플라톤은 이 역설을 상기, 즉 회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이 교의는 모든 사람들 속에 동일하고 본질적인 어떤 것이 있다고 가정한다. 현대 철학사에서 이 교의는 다양한 형태를 띠는데, 선형적 형식, 초월적 자아, 변형 문법 등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상기 신화의 단순한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들 각각은 모두 가르침-배움의 상황 또는 사건이 있는 뒤에, 그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 그 이전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꾸며낸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가라타니 고진, 1998, 212쪽).

따라서 《메논》에 등장하는 대화는 궁극적으로 어떤 공통의 규칙들 속에서 진행될 것을 암

목적으로 요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통의 규칙은 통상적으로 일종의 상호 주관적 의사소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대화는 철저하게 타자를 배제하는 이성의 독단적인 사고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생활세계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일종의 형이상학적 진리체계를 가정한 철저한 ‘독백’(monologue)으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라톤식의 대화에는 어떤 일정한 규칙체계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타자’의 관점이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비판적 논의에는 사실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본질적인 어떤 것이 있음을 가정하는 본질주의를 배격하고 대신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자연스런 역사적 사실로 간주하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 “명령하고,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대답하는 것은 걸어 다니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자연사의 한 부분이다.”(Wittgenstein, 1953, §25) 인류에게 있어 최초의 의사소통이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말을 배울 때 부모에게 언어의 규칙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잘못 할 때마다 부모가 그 실수를 고쳐준 것처럼, 우리는 단지 그렇게 행할 뿐이다. “내가 하나의 규칙을 따를 때, 나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맹목적으로 그 규칙을 따를 뿐이다.”(Wittgenstein, 1953, §219)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입장은 그의 수학적철학에도 전반적으로 적용된다(박만엽, 1998, 2003).

그렇다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는 대화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는 대화(학습)의 기본적 선행 조건에는 화자(교사)와 청자(학생) 간의 비대칭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자 간에는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이 상호 교류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학습의 과정에서 어떤 공통의 규칙이 표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단지 이러한 학습의 상황에서 비롯되는 결과일 뿐이다. 결과가 그러하니까 학습도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는 것은 정작 문제의 근원을 피하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격이 된다. 또한 이러한 비대칭성을 간과하는 것은 나와 타자를 동일시하는 유아론적 사고에 함몰하는 것이다.

상품의 교환가치가 곧 사용가치라는 고전적(신고전적) 경제학의 원리가 깨진 것처럼, 교육에서도 수요와 공급의 획일적인 등가성을 고집하는 것은 이제 구시대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교육의 방법론에도 생활세계에서 통용되는 가치와 효용의 원리가 적극적으로 개입되고 있다. 최근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구축하려는 구성주의에 입각한 교육공학이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 되는 것도 이러한 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구성주의의 이론적 배경과 그 의의

구성주의는 보편적 진리와 법칙이 존재한다는 본질주의 관점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구성주의의 특징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성주의가 태동하게 된 철학적 배경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했을 때 교육학에서 말하는 ‘지식의 구성’이라는 개념이 보다 정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의 내실 있는 적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논의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두 갈래로 나누어 진행한다.

(1) 구성주의의 철학적 배경

철학에서 ‘구성’(construction)이란 용어가 명시적으로 등장한 것은 칸트에서다. 칸트는 『순

『수이성비판』에서 수학적 인식의 본성으로 ‘직관’, ‘개념’ 그리고 ‘구성’이라는 세 용어에 대한 이해를 내세웠다. “수학적 인식은 이성에 의해 개념의 구성으로부터 얻는 인식이다. 개념을 구성한다는 것은 개념에 대응하는 직관을 선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Kant, 1970, B741) 여기서 칸트가 말하는 ‘개념의 구성’이란 말의 핵심은 우리가 삼각형을 종이 위에 그리든 혹은 머리 속에 떠올리든 언제나 우리는 순수직관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험은 본질적인 조건이 아니며 따라서 구성은 선천적으로(a priori)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칸트는 이러한 구성을 통해 얻어진 수학적 인식은 필연성과 엄밀한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칸트는 수학적 지식이 감각적 경험에 의존하는 지식의 체계와는 다른 확실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칸트의 구성 개념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구성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학의 역사에서 진정한 의미의 구성주의는 ‘자연수의 외연은 이미 그 전체가 존재한다는’ 칸토르(G. Cantor)의 집합론에 이의를 제기한 크로네커(L. Kronecker, 1823-1891)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자연수는 신이 만들었지만, 그 밖의 다른 수들은 인간의 작품”이란 말로 유명한 크로네커는 수학에서 대수적 결정절차를 의미하는 ‘알고리즘’의 중요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수학적 구성주의의 반열에 올랐다. 이러한 크로네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비트겐슈타인 역시 수학을 본질적으로 계산을 하는 알고리즘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Marion, 1998, pp.1-4) “수학은 전적으로 계산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학에서 모든 것은 알고리즘이며,... 수학에서 사용되는 낱말들은 심지어 하나의 알고리즘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Wittgenstein, 1974, p.468)

비트겐슈타인은 자연수, 실수, 집합, 함수, 순서쌍 등과 같은 수학적 대상들의 존재를 당연시하는 외연주의에 반대한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수학적 용어들은 아무 것도 지시하지 않으며 수학적 명제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그것들은 단지 우리에게 하나의 명제에서 다른 명제를 추론할 수 있는 일종의 언어적 구조를 제공한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이전에 존재하는 어떤 수학적 실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수학자를 발견자로 보지 않고 수학적 개념의 창조자로 본다(박만엽, 2003).

‘구성’의 개념을 좀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수학적 직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구성적 성격을 알아보자. 이를테면, 아직까지 증명도 반증도 되지 않은 “모든 짝수는 두 개의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골드바흐의 추측(Goldbach's conjecture)과 같은 수학적 진술에 대해 플라톤적 실재론에 근거한 고전 수학자들은 그 진술의 참, 거짓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진술이 참 또는 거짓이라는 진리 조건적 진리치는 여전히 보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관주의자들은 그러한 진술들이 아직 구성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았고 반증되지도 않은 비구성적 진술이라는 점에서 고전수학자들의 입장과 다르다. 고전 수학에 대한 직관주의 수학자들의 비판은 마치 우리들이 전혀 볼 수 없는 표적을 겨냥해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직관주의자들은 이러한 잘못의 원인을 참/거짓이라는 양가 원리를 기반으로 삼는 플라톤주의가 우리의 인식 초월적인 진리 조건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전통 논리학에서 보편적으로 성립되는 논리 법칙들 (동일율($p \rightarrow p$), 모순율($\neg(p \wedge \neg p)$), 배중률($p \vee \neg p$))중에서 배중률에 대한 해석상의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박만엽, 1998, 39-40쪽).¹²⁾

12) 엄밀히 말해서, 직관주의 수학자들과 비트겐슈타인 간에는 ‘구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공유하는 점이

수학적 구성주의의 배경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수학이 모든 학문의 이상적 모델이고 절대적 진리의 원형이라는 생각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진리를 중심적인 가치로 생각했던 기존의 문화적 담론 전반에 대해 창조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사고의 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롭게 인식하게끔 해주는 전기를 마련한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구성주의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한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구성주의에 대한 관점은 비단 학문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 삶의 마당에서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구성주의는 자연의 법칙에 대한 객관적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의 분야에도 적용되면서,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역사를 진보로 이끄는 해방적 힘이라고 믿었던 근대의 낙관적인 계몽적 관점 역시 그 근거가 흔들리게 되었다. 이른바 과학-기술-사회의 관계를 연구하는 STS(Science Technology Society), 혹은 과학지식사회학(SSK)이 과학에 대한 인식론적 토대를 구성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구성주의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한 부분의 학문적 영역에 치우치는 국소적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김환석, 2004). 과학과 대중에 대한 기존의 관계가 일방향적 특성을 가졌다면, 오늘날의 과학과 대중의 관계는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를테면 오늘날의 환경운동이나 NGO와 같은 활동이 과거 소수의 전문가 그룹이 주도한 것과는 달리 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비판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구성주의에 대한 인식이 삶의 양식과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고력의 원천임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성주의 관점은 교육¹³⁾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구성주의는 사회와 교육의 역동적 관계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만큼 교육의 패러다임 역시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과거 산업사회를 주도했던 패러다임이 기계화, 자본중심, 획일화/표준화, 효율성, 예측과 통제에 중심을 두었다면, 정보화 사회는 인본주의적, 지식과 정보중심, 창의력과 다양화, 소비자 중심,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교육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구성주의는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구성주의의 철학적 배경은 17세기 데카르트 이후 서구세계의 인식론의 중심을 이루었던 논리적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의 토대를 거부하는 데서 출발한다. 교육학에서는 이러한 논리적 실증주의를 객관주의로 명명한다.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의 인식론적 차이는 다음과 같다. 객관주의는 절대적 진리와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 진리의 발견을 최종 목표로 한다. 반면에 구성주의는 개인이 생활세계의 현실을 살아가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개인에게 의미가 있고, 타당하고, 적합한 것이 지식이고 진리이며 그러한 지식과 진리를 창조하고 구성하는 데 역점을 둔다. 급진적 구성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인 글래저스펠드는 구성주의의 인

있지만, 구체적인 수학철학을 전개하는 방향에서는 상당히 다른 측면도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박만엽(1998)을 참고할 것.

13) 필자가 여기서 염두에 두는 ‘교육’의 기본적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육이란 삶의 가치를 상호 공유하게 해주고 나아가 각자의 방식대로 보다 나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가치가 “전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이나 사회복지를 통해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교육의 역할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사회의 문화를 향유하고 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각자에게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제공해 주는 데 있다.”(Rawls, 1999, 87쪽)

식론적 원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E. von Glasserfeld, 1995, p.51).

- ① 지식은 지각을 통하여 혹은 대화의 방식으로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식주체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구성된다.
- ② 인식의 기능은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생존을 향한 적응이다.
- ③ 인지는 객관적인 존재론적 실재의 발견이 아닌, 인식주체에 의한 경험적 세계의 조직에 봉사한다.

강인애(2000, 20-25쪽)는 구성주의에 입각한 교육적 방법론으로서 5가지 교수-학습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i)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ownership) ii) 자아 성찰적 실천(self-reflective practice) iii) 협동학습(collaborative learning) 환경의 활용 iv) 교사의 역할: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조연자(scaffolder)이며 배움을 같이하는 동료학습자 v) 구체적 상황(context)과 실제적 성격의 과제(authentic task). 여기서 필자는 이러한 5가지 교수-학습 원칙이 교육의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비판적 사고’의 총체적 개입을 주장한다. 그 이유는 학습자들이 올바른 비판적 사고를 정립함으로써 시대의 급속한 변화에서 야기된 문제들을 주체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열린 사고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구성주의는 정보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성, 유연성,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력 등을 지닌 학습자들을 육성하고 좀더 인본주의적인 위치에서 학습자에게 많은 자율성과 선택권을 주며 그들의 목소리와 요구, 흥미와 관심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뒷받침하는 학습이론이라 규정할 수 있다(강인애, 2000, 26쪽).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필자는 비판적 사고와 구성주의의 연계가능성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구성주의가 나무의 줄기를 떠받치는 뿌리 역할을 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비판적 사고는 나무의 열매를 꽃피우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델피 보고서에 규정된 것처럼 비판적 사고가 “필요불가결한 탐구의 도구로서, 교육에서 해방적 힘이 되고, 시민사회에서 위력 있는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특히 비판적 사고가 우리 사회의 갈등적 요인들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 비평의 가능성을 옹호하고, 고등교육의 목적에 대해 신뢰할 만한 설명을 만들어 내고, 이성의 그늘에 가려진 감성적 사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사학과의 새로운 만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비판적 사고와 수사학의 만남

철학의 역사는 곧 비판적 사고의 연속이라 할 만큼, 철학 이론의 발전에서 비판적 사고는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했다. 형이상학에서 언어철학에 이르는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주류적 담론이라는 특권적 위치를 누린 것은 참/거짓, 주관/객관의 이분법에 토대를 둔 절대적 진리관이었다. 합리적 이성 토대를 둔 논리학이 수사학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 것도 이러한 철학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이븐 할둔(Ibn Khaldūn)이 언급했던 ‘혀의 기술’ 혹은 말을 잘하게 하는 학문 정도로 치부되어온 수사학은 상대적으로 엄정한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의 모델로서는 적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에서 비판적 사고는 그 방법론으로서 논리학을 선호하는 대신 수사학은 폄하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철학의 형식화는 여기서 시작된다. 이를테면, 플라톤이 자신의 철학적 근거를 발견한 것도 ‘존재자의 존재자성’을 이데아로 간주하고 그 위에도 형식적 체계의 건축물을 구축한 것도 이러한

철학의 형식화와 무관하지 않다. 근대의 과학적 사유의 전형을 이룩한 데카르트의 필연적 진리에 대한 사유는 우리가 세계에 관해 정말로 아는 것은 수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이른바 ‘세계의 수학적화’(Crosswhite, 2001, 10쪽)에 대한 사유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이성의 개념을 수학적인 혹은 형식적인 추론으로 제한하는 것, 혹은 이것을 모든 추론 모델을 위한 기초로 삼는 것은 수사학에 등을 돌렸던, 그리고 어느 정도는 추론 그 자체에 등을 돌렸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다(같은 책, 236쪽).

그러나 시대적 상황이 변하면서, 철학이 수사학을 배제한 것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다. 이러한 수사학의 조심스런(?) 부활에는 ‘철학의 종말’을 선포한 니체로부터 하이데거, 데리다로 이어지는 전통적 형이상학에 대한 거부(혹은 해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영미철학에서는 비트겐슈타인과 오스틴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언어와 의미의 기초에서 수사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필자는 여기서 논의의 초점을 비트겐슈타인에 맞추려 한다. 그 이유는 전기 비트겐슈타인이 『논고』에서 언어와 세계의 문제를 엄격한 논리적 관점에서 추구한 반면, 후기의 『철학적 탐구』에서는 언어에서 수사학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강한 대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은 우리가 이제까지 논의했던 비판적 사고와 생활세계, 구성주의, 수사학 등을 아우르는 철학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찰이 있는 거친 땅으로 되돌아 갈 것’(Wittgenstein, 1953, §107)을 천명한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이승중, 122-3쪽). 하나는 형이상학적 근거의 필요성에 대한 전복이며, 다른 하나는 낱말의 의미보다는 수사학적 힘이 언어의 기초로 간주하는 것이 언어의 쓰임에서 비롯되는 복잡한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이는 것이었다.¹⁴⁾

현대 수사학 이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페렐만(C. Perelman)과 루시 올브레히츠-티테카(Lucie Olbrechts-Tyteca)의 공저 《신수사학: 논증 행위의 특성》에서 전통의 형이상학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난 3세기 동안 서구 철학에 흔적을 남겨 온 데카르트에 기인하는 이성 및 추론의 개념과 단절을 이룰 것”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과거의 형이상학을 단절하고 이성의 수사학을 규명하려는 이들의 시도를 크로스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Crosswhite, 31-3쪽).

첫째, 추론의 척도는 영원히 현존하는 사물들의 본질적인 성격에 있는, 시간을 초월하는 논리적인 기준이 아니다. 자명함은 이성 및 참된 지식의 주요한 특징이 아니다. 논증 행위의 목표는 다른 사람의 지지를 얻는 것이다.

둘째, 논증 행위의 목표가 전개되는 어떤 주장에 대하여 청중의 지지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지지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증 행위는 다양한 청중에 따라 그리고 다양한 정도로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논증에는 더 나은 논증과 덜 나은 논증이 있을 뿐이며, 주장에는 더 설득력이 있는 주장과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 있을 뿐이다.

14) ‘구성적 수사학’을 주장하는 화이트(J. B. White) 역시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옹호하고 있다. “수사학자는 정치철학자들이 사회계약론을 사유하듯이 상상된 고립 속에서 상상된 개인과 더불어 시작하지도 않으며, 데카르트적인 전통에서 형이상학자들이 그렇듯이 인지의 경험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으며, 비트겐슈타인이 우리에게 출발해보라고 말한 지점인 언어, 행위, 그리고 의미에 관한 우리의 능력들과 더불어 시작한다. ... 수사학적 지식은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갖는 기대를 우리가 이해함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통솔하고, 회피하고—실망시키고,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지식이다. 이 지식은 과학적인 의미에서 증명될 수 없으며 논리적으로 엄격하지도 않다. ...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삶의 수사적 과정 속에 연루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이미 어떻게 하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문과학의 수사학』, 420-1쪽)

셋째, 논증 행위의 골격은 윤리적인 요소들로 구성되며, 특정한 윤리적 약속을 포함한다. 그리고 많은 특정한 논증 행위의 전략은 어떤 윤리적인 호소로 물들어 있다. ... 논증 행위는 세계의 다양한 '열어 밝혀져 있음'에 대한 주장들을 공정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화해시키려는 시도이다.

이들은 전통적 의미의 논리학과 수사학의 분리의 극복을 추구하는 논증론을 '신수사학'이라고 명명하고 형식논리학과는 달리 논리적 증명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을 포함하고, 고전적 수사학과는 달리 개인적인 믿음을 넘어서는 합리적인 설득력의 영역을 다루고자 한다. 다시 말해 신수사학은 담론 공동체에서 합리적인 설득력을 지향하고 상호주관적인 이해와 의사소통의 분야로 발전시키고자 시도한다. 여기에서는 논리학의 이가성은 폐기되고 논증 행위의 결과는 다양한 청중에 따라 청중의 지지에 대한 다양한 정도의 성공과 실패로 이해된다(하병학, 2002, 70-1쪽).

그렇다면 수사학이 다루어야 할 영역은 인간의 문화와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는 언어적 담론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수사학 역시 구성주의와 결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필자가 이미 앞에서 행위와 행동을 구분한 것도 '구성적 수사학'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갈매기가 고기를 잡는 것과 사람이 낚시를 하는 것의 궁극적인 차이는 의미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두 사람이 낚시를 한다고 할 적에,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의 의미의 문제를 공유한다. 그들의 관점은 다를 수 있으며, 그들의 차이는 그들 공통의 행위 뿐 아니라 그들 관계의 의미에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배 또는 평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따르는가, 아니면 그들은 함께 행동하는가? 그들이 행동하는 바에 대한 관점은 서로 일치하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아는가? 그들 사이에는 긴장이나 불화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그에 대해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 그들이 협상하고 있는 조건들은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 이해될 수 있는 관계와 공유된 의미의 정립,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한 것에 대해 '우리'라고 말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대한 지속적인 의미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공동체의 창출, 이 모든 것은 그 심층적 차원에서 교육 뿐 아니라 설득을 요구하며 구성적 수사학의 한 부분을 이룬다(White, 『인문과학의 수사학』, 417쪽, 참고).

결국, 비판적 사고가 그 대상이 되는 다양한 논증들에 대해 나와 타자의 열린 자세를 견지하며 지속적인 물음의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수사학에 토대를 둔 논증 행위의 실천도 비판적 사고의 범주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논증 행위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과 추론을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합의하는 하나의 실천이며, 이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함께 살기 위하여 공통된 무엇인가를 창조하려는 욕망을 실현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Crosswhite, 235쪽) 때문이다.

비판적 사고가 이성의 논리라는 엄격한 굴레를 벗고 감성의 논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건강한 텃밭에서 싱싱한 채소가 자라는 것처럼, 건강한 마음의 텃밭에서 활력 있는 감성의 논리가 자랄 수 있을 때, 과거 이성주의의 폐단에서 비롯된 잘못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삶의 열정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각자 자신에게 잃어버린 감성의 논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사학에 대한 과거의 편견은 과감하게 청산할 필요가 있다. 비판적 사고와 새로운 수사학의 만남은 '지평의 융합'을 모색하려는 우리 시대의 흐름에 거스를 수 없게 되었다.

5. 맺는 글

시대가 변하고 있다. 엄청난 변화의 흐름은 우리의 생활세계를 관통하는 삶의 양식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이다. 근대성으로부터 탈근대성으로 이행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교육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분야에서 ‘비판적 사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비판적 사고와 구성주의의 결합을 통해 학문의 영역은 물론 생활세계의 다양한 담론들을 비판하는 데 구성주의가 나름대로의 이론적 기반이 충분히 될 수 있다. 필자가 주장한 논의의 핵심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① 생활세계에 근거를 둔 비판적 사고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산적이며 긍정적인 활동이다. 비판적 사고는 창조성과 사고방식의 혁신을 요구한다.
- ② KICE 연구보고서의 비판적 사고력 문항은 논리적 사고를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인지 능력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정의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③ 타자의 차이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화는 진정한 대화가 아니다. 플라톤의 ‘대화’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 ④ ‘구성’의 의의는 진리를 중심 가치를 생각했던 기존의 문화적 담론 전반에 대해 창조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사고의 힘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준데 있다.
- ⑤ 비판적 사고와 새로운 수사학의 만남은 우리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요청이자, 실천의요인이다.

변화의 흐름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메타적 차원이 아닌 생활세계의 다양한 담론을 직접 아우를 수 있는 실천적 방안과 그에 부합하는 기술과 방법론이 요구된다. 그래서 필자는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을 생각했던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글의 결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 생각되는 것은 비판적 사고와 비판적 글쓰기의 조화와 관련된 방법론의 문제라 보아진다. 다양한 담론들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창조적인 글쓰기를 통해 자신만의 비판적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하는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는 비판적 사고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관성적 사고방식에 대한 도전과 일탈이 될 것이다. 또한 탄탄한 ‘자기 인식과 행동의 준거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되리라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i) 타자의 삶에 대한 세심한 관찰력 ii) 자신의 감각과 감성으로 기존의 텍스트를 읽어낼 수 있는 ‘다시 읽고 생각하는 능력’ iii) 몸으로 ‘체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모색하려는 의지가 요구되리라 생각한다.

둘째, 인터넷 문화에서 글쓰기의 경계는 과거 글쓰기의 경계와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하이퍼텍스트에서의 글쓰기는 표절¹⁵⁾(plagiarism)과 창조의 경계선을 가로지르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호텍스트성으로 인한 표절과 창조의 경계문제를 논하지 않고는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는 올바른 비판적 글쓰기의 자리매김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사이버 민주주의의 문화적 담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감성의 논리와 새로운 수사학의 융합을 위해서는 은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단순한 고정적 의미에서의 은유가 아닌 “특정한 사물이 어떤 상

15) 표절 문제에 관한 최근의 저작으로는 Angelil-Carter(2000)을 참고할 것.

황에서 갖고 있는 내용과 의미를 다른 상황으로 전이시키는 행위” (Siler, 2002, 19쪽)로서 상황에 적합한 ‘메타포밍’(metaphorming)의 실용적 가치에 대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메타포밍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공하고 개념의 정의, 설명,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 해답을 가시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복잡한 정보, 생각, 감정을 쉽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 메타포밍은 우리의 삶을 보다 명료하게 볼 수 있는 관점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촉진시키고 옛 지식을 다시 새롭게 응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생활세계에서 솟구치는 은유의 실천적 힘에 주목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정신을 새롭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K C I

참고문헌

- 가라타니 고진(1998), 『은유로서의 건축』, 김재희 옮김, 한나래.
- 강인애(2000), 『왜 구성주의인가? -정보화시대와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문음사.
- 강인애(2003), 『우리 시대의 구성주의』, 문음사.
- 김광수(2001),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 육성을 위한 ‘생각하는 교육’의 정책 및 프로그램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김영정의(2003), 『오란디프 논술』, 오란디프.
- 김환석(2004), “근대적 과학기술의 ‘암흑상자’ 열기: STS의 흐름과 전망을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총학생회 2004 동계특강 자료집』.
- 뉴턴 가버·이승중(1998), 『테리다와 비트겐슈타인』, 이데아 총서 60, 민음사.
- 박만엽(1998), “비트겐슈타인의 수학기초론 비판”, 중대박사학위논문.
- 석봉래(2003), 『논리와 심리: 인간의 합리적 사고에 관한 연구』, 서광사.
- 이재분(1996), “아동의 추리 과제 해결 능력에 대한 발달 수준 분석”, 이혜성 외(1996), 493-524쪽.
- 이혜성외(1996), 『인지와 창의성의 심리학』, 김재은 교수 정년 기념 논문집, 창지사.
- 정진홍(2000), 『아톰@비트』, 푸른숲.
- 하병학(1999), 『토론과 설득을 위한 우리들의 논리』, 철학과 현실사.
- 하병학(2002), “학제적 학문탐구를 위한 비판적 사고와 논증론(논변론)”, 『철학연구』 제 58집, 2002 가을, 철학연구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1), 『사고력 검사 개발 연구(1), 비판적 사고력 검사 예비문항 개발편』
- 허재영(1995), “자크 데리다: 해체적 독해와 지배담론 허물기”, 이진경(1995), 『철학의탈주』, 새길신서 44.
- Crosswhite, J(2001), *The Rhetoric of Reason: Writing and the Attractions of Argument*, 『이성의 수사학: 글쓰기와 논증의 매력』, 오형엽 옮김, 고대 출판부.
- Huitt, W(1998), <http://chiron.valdosta.edu/whuitt/col/cogsys/critthnk>.
- Janich, P(2004), *Die Konstruktive Wissenschaftstheorie*, 『구성주의 과학철학』, 이기홍 옮김, 철학과현실사.
- J. S. Nelson/A. Megil/D. N. McCloskey(1987), *The Rhetoric of the Human Sciences*, 『인문과학의 수사학』, 박우수 외(2003) 옮김, 고려대학교출판부
- Marion, M(1998), *Wittgenstein, Finitism, and the Foundations of Mathematics*, Clarendon Press, Oxford.
- McKay, T(2000), *Reasons, Explanations and Decisions: Guidelines for Critical Thinking*, Wadsworth.
- McPeck, John E(1981), *Critical Thinking and Education*, Western Ontario Uni. Martin Robertson, Oxford.
- Petrie & Oshlag(1996), “Metaphor and Learning”, in *Ortony, A(1996), Metaphor and Thought*, Cambridge Uni Press.
- Rawls, J(1999),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Ruggiero, V. R(1984), *The Art of Thinking, A Guide to Critical and Creative Thought*, Harper & Row, Publishers, New York.

Siler,T(2002), *Think Like a Genius*, 『천재처럼 생각하기』, 강현구 옮김, 한·인.

Shelly Angelil-Carter(2000), *Stolen Language? Plagiarism in Writing*, Pearson Education.

Wittgenstein(1953),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Oxford: Blackwell.

_____ (1969), *On Certainty*, Oxford: Blackwell.

_____ (1922),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Routledge & Kegan Paul.

_____ (1978), *Remarks on the Foundations of Mathematics*, Oxford: Blackwell.

K C I

Critical Thinking and Constructivism

Man-Yoep, Park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problem 'Critical Thinking and Constructivism'. Now, we live in the age of current change, so called the age of information and globalization. The movement to the information age has focused attention on good thinking as an element of life success. These changing conditions require new outcomes, such as critical thinking, to be included as a focus of schooling. In order to comprehend this point correctly, we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as following some ideas on critical thinking and constructivism: (1) Critical thinking based on the life world is ultimately productive and positive activities in our life. It requires creativity and renovation of the way of thinking. (2) According to the KICE research report, it needs to be supplemented questioning items that is prior to logical thinking. I think a comprehensive study on empirical and emotional aspects of human cognitive ability is more needed than any other aspects. (3) A dialogue is not considered the difference of the other is not genuine. We must rethink the presuppositions of the Platon's Dialogues. (4) The significance of the 'construct' is awakening an importance of the power of thought, that is able to criticize creatively all the established cultural discourses that was considered truth a central values. (5) A new fusion of critical thinking and rhetorics is an inevitable postulate in our age and a factor of practice.

We are now in a new situation replacing all of the past paradigms of human society. I want to say this: Don't be afraid of an development of manyfold thought experiments. What looks like a bad thinking can be the germ of a good one. Consequently, critical thinking based on constructive methods of learning is important attribute for success in the 21st century. Therefore we need to identify 'best' methods of instruction for each aspect of the critical thinking and process.

Key Words critical thinking, constructivism, Lebenswelt, language game, arguementation, problem-solving ability, rhetoric.

к с і

KCS I